

## OC에 '한인 정치력 신장 운동' 단체 발족



▲ 'OC한미지도자협의회' 폴 회장(앞줄 가운데)과 발기인들이 대회를 마친 후 자리를 함께했다. 사진=OC한미지도자협의회

오렌지카운티(OC)에서 한인 커뮤니티 정치력 신장 운동을 위한 단체가 설립됐다.

비영리단체 'OC한미지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4일 애너하임에 있는 메가시스 펜탈 랩(대표 정명동)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초대회장으로 폴 회장 OC총청향우회장을 선출했다. 협의회는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됐다.

최 회장은 "타 커뮤니티에는 그들 커뮤니티 정치력 신장을 위한 단체들이 적지 않게 있다. 이처럼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한인 정치력을 더욱 신장시켜 한인들의 위상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협의회를 창립하게 됐다." 면서 "향후 정파를 조율해 한인 정치인은 물론이고 한인이 아니라도 친한과 정치인을 많이 배출하기 위한 일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유권자 등록 독려 ●차세대 한인 정치인 발굴 및 정계 입문 지원 ●정치인의 한인 보좌관, 각 도시의 한인 커미셔너 임명 요청 및 지원 ●한인 청소년의 정치 관심 제고 위한 세미나 개최 ●한인 민원 건의 및 해결 위해 정치인과 만남 주선 ●지지 후보 선거 캠페인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연합회는 한인 커뮤니티에 꼭 필요한 단체로 성장할 것"이라며 같은 뜻을 가진 한인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 문의: (714) 270-6639, (949) 400-5878

## 태미 김 어바인 부시장 '주민과 대화'

### 18일 로스트빈 커피숍

태미 김 어바인 부시장이 오는 3월 18일(토) 오전 9시30분~11시까지 우드 브리지 빌리지 센터의 커피숍 '더 로스트 빙(The Lost Bean Organic Coffee & Tea, 4632 Barranca Pkwy.)'에서 '주민과 대화의 시간' 행사를 연다.



▲ 태미 김 어바인 부시장  
사진=cityofirvine.org

김 부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어바인시의 주요 이슈를 놓고 대화할 예정이다. 김 부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대면할 시간을

늘려 함께 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주민과 접촉면을 넓혀갈 예정이다. '주민과 대화의 시간' 참가 예약은 온라인([bit.ly/coffeewithTammy](http://bit.ly/coffeewithTammy))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김 부시장은 지난달 1일 어바인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20년 11월 실시했던 어바인 시의원 선거에서 4만7,000여표를 득표하며 첫 도전에서 14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승리를 거머쥐었던 김 부시장이 내년 11월 실시되는 어바인 시장 선거에서도 당선될 경우 미국 100대 도시 첫 한인 여성 시장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시의회 선거와 별도로 선거를 치르는 2년 임기의 어바인 시장직은 강석희 전 시장이 2008~12년까지, 최석호 전 시장이 2012~16년까지 재임한 바 있다.

## 풀러턴 시, 한국문화축제 연다



▲ 풀러턴시 주최 한국문화축제 장소로 거론되는 '마肯탈러 문화센터'. 사진=themuck.org

한인 밀집 거주 지역 가운데 하나인 풀러턴 시가 오는 10월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풀러턴 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회의에서 올해와 내년 가을에 한국문화축제를 여는 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풀러턴 시는 이 축제 개최를 위해 '미주예술원 다루' (대표 서연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했다.

풀러턴 시가 개최하는 한국문화축제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유력한 축제 장소로 거론되는 곳은 '마肯탈러 문화센터'이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대안으로 CSU풀러턴이나 풀러턴 칼리지가 거론되고 있다.

풀러턴 시와 '미주예술원 다루'는 축제 기간 동안 한국 전통 무용과 음악 공연, 미술품 전시, K-팝 공연, 한국음식 만들기와 시식 등 현대와 과거를 아우르는 다양한 한국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주 지역 문화 예술인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 전통문화 예술인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프레드 정 풀러턴시장은 "풀러턴은 남가주의 대표적인 한인 밀집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만큼 시 차원에서도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풀러턴 최초의 한인 시장으로서 우리 도시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즐기는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Implant  
\$1,500**

**잇몸치료  
\$600**

**Exam  
X-ray  
Cleaning \$60**

**Crown  
\$700**

**틀니  
\$2,000**

**각종 보험  
메디칼 환영**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Dr. Soong Hoon Cho  
DDS